

## 2강 in ... “우승만 남았다”



이강인

U-20 월드컵 결승 진출  
한국 남자 축구 새 역사  
이강인·황태현·엄원상 맹활약  
16일 일요일 새벽 1시  
우크라이나와 최후의 승부



최준이 12일 새벽 폴란드 루블린 경기장에서 열린 2019 국제축구연맹(FIFA) 20세 이하 월드컵 4강전 한국과 에콰도르의 경기에서 골을 넣은 뒤 환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정용 감독이 이끄는 한국 U-20 대표팀이 2019 폴란드 국제축구연맹(FIFA) U-20 월드컵에서 역대 첫 결승 진출의 새 역사를 썼다. 한국 남자 축구 사상 첫 FIFA 주관 대회 결승행이다. <관련기사 2·20면>

한국이 우승하면 아르헨티나(6회 우승), 브라질(5회), 포르투갈(2회), 세르비아(2회), 가나, 스페인, 소련, 독일, 잉글랜드, 프랑스에 이어 11번째 우승 국가가 된다. 황태현(안산 그리너스)과 엄원상(광주 FC) 등 광주-전남 연고 선수들도 이날 선발과 교체 선수로 투입돼 맹활약했다.

대한민국은 한국 12일 새벽 폴란드 루블린 경기장에서 열린 에콰도르와 대회 준결승에서 전반 39분 이강인(발렌시아)의 프리킥 패스를 받은 최준(연세대)이 결승골을 터뜨려 1-0으로 이겼다.

정정용호는 이제 한국을 넘어 아시아 축구사를 새로 쓸 기회도 잡았다.

우리나라는 카타르, 일본에 이어 아시아 국가로는 세 번째로 FIFA U-20 월드컵 결승에 진출했다.

제3회 대회였던 1981년 호주대회에서

카타르가 처음 결승에 올랐고, 1999년 나이지리아 대회에서 일본이 결승 그라운드를 밟았다.

하지만 아직 이 대회에서 우승한 아시아 국가는 없다. 카타르와 일본은 결승에서 당시 서독과 스페인에 각각 0-4로 무릎을 꿇었다.

이날 정정용 감독은 이강인과 오세훈(아산)을 투톱 배치했다. 2선에는 고재현(대구)과 김세운(대전)을 세우고 정호진(고려대)에게 수비형 미드필더를 맡긴 5-3-2의 안정적인 수비전술을 가동했다.

경기 초반 경기장을 폭 넓게 사용한 한국은 주전을 잡았지만 선취골의 기회를 살리지 못했다.

이후 한국은 개인기를 앞세운 에콰도르의 짧은 패스에 끌려다녔다.

기회는 에콰도르가 먼저 잡았다.

전반 37분 역습 상황에서 이번대회에서 한골도 넣지 못한 주전 공격수 레오나르도 캄파나가 회심의 왼발슛이 시도됐지만 크로스바를 맞고 나왔다.

위기 뒤 기회가 찾아왔다. 에이스 이강인의 재치로 있는 세트플레이를 최준(연세대)이 마무리했다.

왼쪽에서 프리킥을 얻은 이강인이 재빠르게 노퍽패스를 찰라했고, 최준이 놓치지 않고 오른발 슛으로 에콰도르의 골그물을 흔들었다.

에콰도르 수비진의 허를 찌른 이강인의

센스와 왼쪽 측면 수비자이지만 오른발을 쓰는 최준의 결정력이 빛어낸 멋진 득점 장면이었다.

정정용 감독은 1-0 리드에도 잠그지 않고 후반 9분 미드필더 김세운 대신 조영욱(서울FC)을 투입하며 공격을 이어갔다. 급해진 에콰도르는 후반 26분 팔라시오스 에스포노사의 왼발 중거리포가 한국 골대를 위협했지만 이광연의 기막힌 선방에 막혔다.

정 감독은 후반 28분 체력이 떨어진 이강인을 빼고 미드필더 박태준(성남)을 투입했다.

후반 28분 이강인의 교체로 최전방으로 올라간 조영욱이 폭풍 드리블에 이어 오른발 슛이 골키퍼에 아쉽게 막혔다.

대표팀은 후반 36분에는 고재현이 근육 부상으로 쓰러지자 공격자원인 엄원상이 대신 투입돼 마지막 공세에 힘썼다.

한국은 후반 40분 엄원상이 오세훈과의 원투패스로 단독 찬스를 만들었다. 하지만 비디오판독(VAR) 결과 엄원상의 오프사이드로 판정돼 무효가 됐다.

후반 종료 직전 캄파나의 결정적인 헤딩 슛은 이광연이 '세이브'로 막아내며 한국 축구의 새 역사를 일궈냈다.

한국은 오는 16일 새벽 1시 폴란드 우치 경기장에서 우크라이나와 U-20 월드컵 우승을 두고 최후의 한판을 벌인다.

/김한영 기자 young@kwangju.co.kr



북한 김여정 노동당 선전선동부 제1부부장(오른쪽)이 12일 오후 이희호 여사 서거와 관련, 판문점 통일각에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가운데), 박지원 김대중평화센터 부이사장에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보내는 조화를 전달하고 있다. /연합뉴스

## 北 김여정, 판문점서 김정은 조의 전달...“남북협력 계속하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북한 노동당 선전선동부 제1부부장이 12일 오후 고(故) 이희호 여사 별세에 대한 김 위원장의 조의문과 조화를 남북에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 ‘이 여사의 유지를 받들어 남북관계를 더욱 발전시켜야 한다’는 취지의 김정은 위원장 메시지가 전달되고, 김여정 제1부부장은 남북협력 의지를 밝혔지만 남북 정상 간 친서 교환은 없었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서호 통일외교부 대변인을 대표하는 박지원 김대중평화센터 부이사장(민주평화당

의원)은 이날 오후 5시께부터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김 제1부부장 등을 만나 조화와 조의문을 전달받았다.

정 실장은 이후 파주 도라산 남북출입사무소(CIQ)로 입경한 뒤 ‘김여정 제1부부장의 메시지가 무엇인가’라는 취재진 질문에 “이희호 여사님의 그간의 민족 간 화합과 협력을 위해 애쓰신 뜻을 받들어서, 남북 간의 협력을 계속해 나가길 바란다”는 취지의 말씀이 있었다고 밝혔다.

정 실장은 남북 정상이 서로에게 전하는 메시지나 친서는 없었다는 질문에 “오늘은 고인에 대한 남북의 추모와 애도의

말씀에 집중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김정은 위원장의 메시지에 대해 취재진에 “이 여사님이 기여한 공로를 기억하고 유지를 받들어서 남북관계를 더욱 발전시켜야 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그는 조문사절단이 오기를 기대했는데 아쉽다는 뜻과 함께 김 위원장에게 감사의 말을 전해달라고 했다며 김 제1부부장이 “위원장께 그런 말씀을 드리겠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이날 양측은 비교적 좋은 분위기에서 15분 정도 이야기를 나눴다. /연합뉴스

## 김정은 친서...트럼프 “긍정적 일 있을 것”

## 북·미, 톱다운 교착돌파 촉각

2차 정상회담 결렬 이후 북미 간 교착이 지속된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서 ‘아름다운 친서’를 받았다고 공개해 톱다운식 돌파구가 마련될지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서부터 전달 아름다운 친

서를 받았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의 친서 전달 사실이 공개된 것은 지난 2월 27~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된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하노이 노딜” 이후 3개월여간 북미간 교착-긴장국면이 이어져 온 가운데 ‘세기

의 답판’으로 불려온 6·12 싱가포르 1차 북미 정상회담 1주년을 기해 북미 정상 간 톱다운 ‘친서 외교’를 통해 중대 돌파구가 극적으로 마련될지 주목된다.

특히 싱가포르 1주년을 즈음한 친서 외교를 통해 그동안 막혀 있던 실무급의 협상이 재개되고 미국의 ‘빅딜’과 북한의 ‘단계적 접근’ 간 접점 모색이 시작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달 말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간의 한미 정상회담도 예정돼 있어 북미대화 재개를 위한 움직임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사랑과 감사의 65년  
민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19]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2019.7.12 - 7.28. (17일간) www.gwangju2019.com  
제18회 2019 광주FINA세계마스터즈수영선수권대회  
2019. 8. 5. - 8. 18. (14일간)

“자랑스러운  
광주시민 여러분!”

불법 광고물 없는  
쾌적하고 아름다운 거리  
함께 만들어요!

제18회 2019광주FINA세계수영선수권대회  
DIVE INTO PEACE  
평화의 물결 속으로

GWANGJU 2019 Fina WORLD CHAMPIONSHIPS

Nikon Yakult arena Myrtha Pools OMEGA SAMSUNG